

붕괴 직전에 이른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에콜로지카



임드레 고르스 지음 | 임희근, 장혜용 옮김 | 강수돌 해제

갈라파고스

모심과살림연구소

학습모임

‘노동’ 주제 3번째 이야기

일시: 2021년 6월 25일

발제: 조미성

앙드레 고르즈 André Gorz

1923-2007

프랑스의 철학자
생태사회주의자



목차

[머리말] 정치생태학: 해방의 윤리

1. 자본주의로부터의 이탈은 이미 시작되었다
2. 정치생태학: 전문가 정치와 자율규제 사이
3. 자동차의 사회적 이데올로기
4. 파괴적 성장과 생산적 탈성장
5. 세계적 위기, 탈성장,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벗어나기
6. 가치 없는 부, 부 없는 가치

[해제] 강수돌

1. 삶에 대한 성찰 : 소비자와 노동자가 아닌, 인간 삶의 주체로
2. 기술에 대한 성찰 : 닫힌 기술이 아닌, 열린 기술로
3. 노동에 대한 성찰 : 임금노동자가 아닌, 창조적 활동가로 / 소유가 아니라 자유
4. 전문가에 대한 성찰 : 생활세계의 수호와 자율규제의 문화로
5. 자본주의와 성장에 대한 성찰 : 인간 노동력과 자연생태계 착취의 한계에서 지속가능성으로

발제 목차

1. 자본주의 위기와 파괴적 성장
2. 자본주의를 벗어나기: 탈성장과 생태운동
3. 노동: 소유에서 자유로, 공범에서 창조자로

1. 자본주의 위기와 파괴적 성장

“ 경제예측은 중립적이지 않다.

거기에는 현행 시스템을 지속시키려는 암묵적인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다.

... 그리하여 파괴는 부의 원천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로부터의 이탈은 문명적 방식으로든 야만적 방식으로든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자본주의 체계의 위기

[위기의 원인]

지식과 정보 혁명

노동과 자본의 비물질화

상품의 가치측정이 점점 불가능해짐



[자본주의 내적 한계]

서비스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함

자본이 증식할 수 없고 이윤 창출 불가능



[교환가치에 기초한 경제의 하강]

지식경제의 모순

지식경제는 그 자체로 자본주의의 위기

지식은 자체 본성때문에 사유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진정한 상품이 될 수 없음

지식경제의 모순:

노동의 비물질적 구성요소의 중요성이 커짐

노동자가 자기 안에서 끌어낸 경험을 생산에 기여할 것을 요구



노동자의 체험을 측정할 수 없음.

노동에 투입된 시간만으로 노동을 측정할 수 없음

각자 투여한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음.

상품의 비물질적 가치 증가

자본주의 균열로 인해 생산물의 가치 하락

기업은 물질적 제품을 비물질적, 상징적, 정서적, 미적 내용물이 담긴 매체로 변모시킴.

제품의 실질적 사용 가치보다 소유주에게 부여하는 정체성, 주관적 효용이 중요

예술작품처럼... 가격은 희소성, 창작자의 명성, 잠재적 구매자의 욕망에 좌우됨

“사람들은 의복이 아니라 유행 또는 체면을 입고 있다.

... 대중은 제품이 아니라 만족과 의미를 구입한다.”

➡ 자본주의 경제 유지와 성장은 주로 비물질적 소비 덕분

상품의 비물질적 가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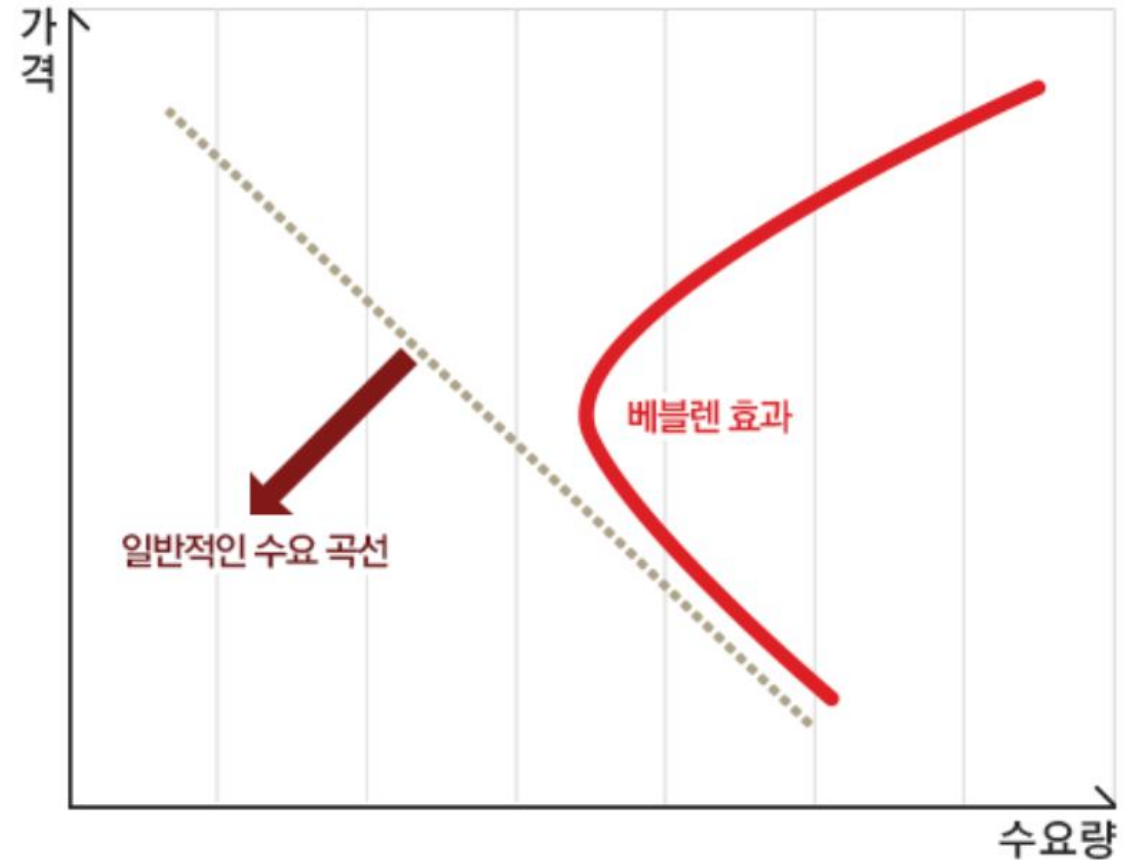
명품: 베블렌재

국가별 주요 명품 제품 가격 (단위=만원)

브랜드·제품	한국	프랑스	미국
샤넬 클래식 플랩백	769	757	697
루이비통 호보 도핀 MM	409	325	397
구찌 GG 미디엄 토트백	264	233	258

*7월 셋째주 각국 환율 기준 원화 환산 금액, 자료=각 회사 공식 온라인몰

구찌 GG 미디엄 토트백 샤넬 클래식 플랩백 루이비통 호보 도핀 MM



상품의 비물질적 가치 증가

광고와 마케팅



THE BTS 세트 출시



상품의 비물질적 가치 증가

부동산과 주식, 금융파생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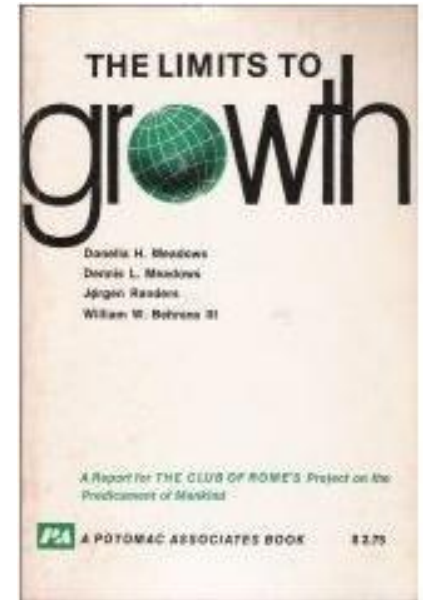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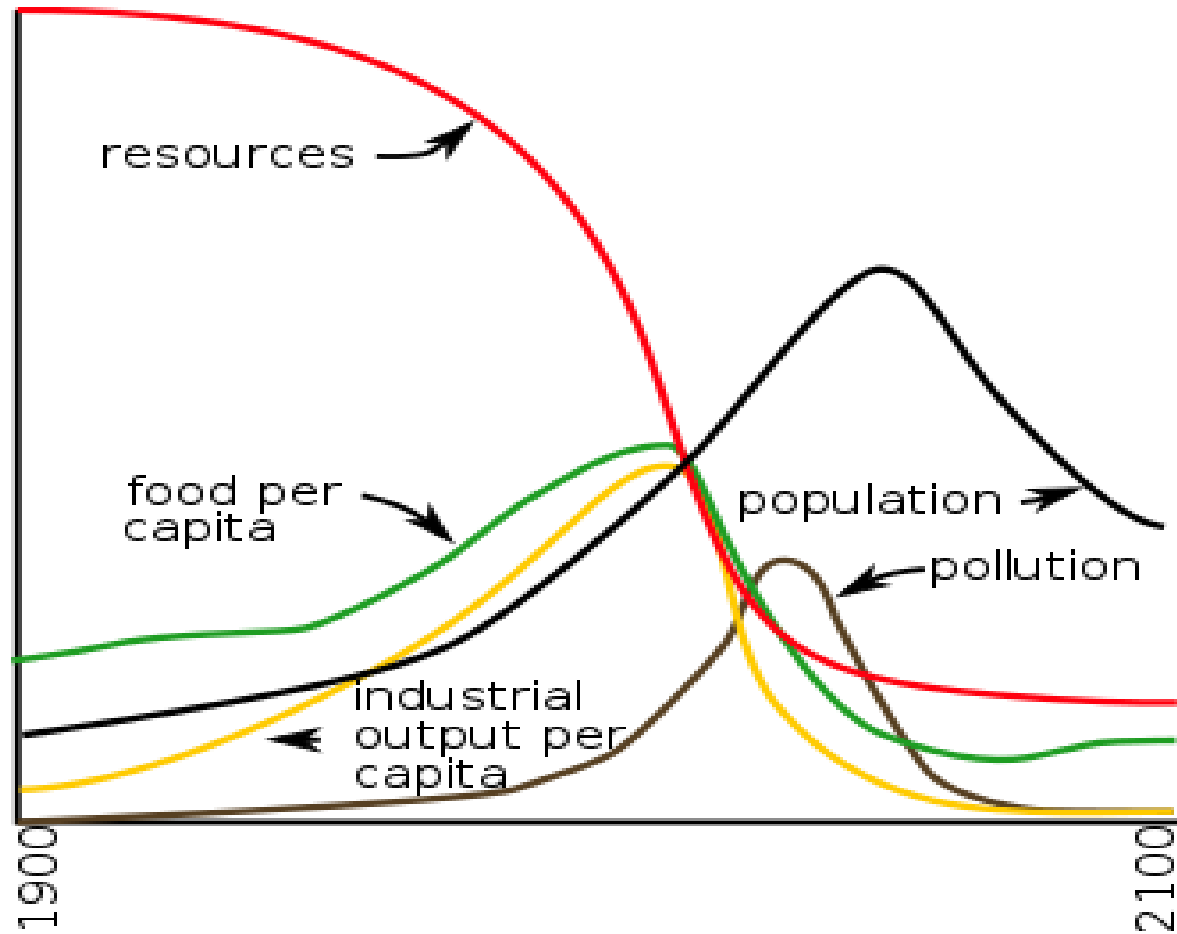


“부동산 규제에 ‘영끌’ 멈추고
주식시장 향한 2030세대”

성장에 대한 두 가지 환상

- 1) 가능하지 않음 : 생태적 한계
- 2) 삶의 질을 높이지 않음 : 파괴적 성장

성장의 한계



출처: 메도우 외, 1972, 성장의 한계

파괴적 성장

- GDP에 계산되는 것: 상품의 형태를 띠는 부 ex) 의료비 증가, 재난복구 비용, 환경파괴
- GDP에 계산되지 않는 것: 건강한 먹거리, 양질의 식수, 오염되지 않은 공기, 쾌적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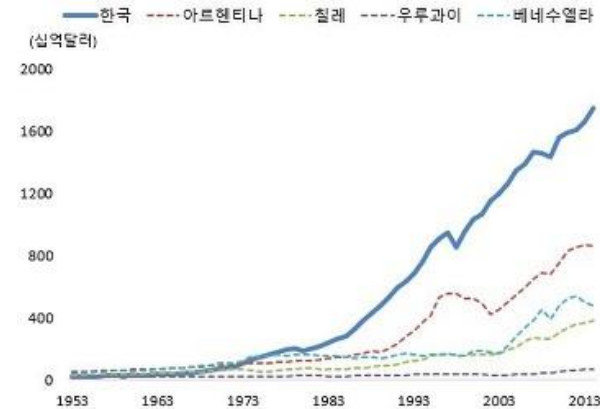
낭비와 파괴는 자본주의 부의 원천

에너지사용량이 높은 제조방식과 소비

인위적으로 줄이는 제품의 한계수명

성장은 인간의 필요가 아닌, 자본의 필요에 따른 것

현재의 에너지소비 수준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풍요로운’ 자본주의 발전유형의 선택 결과



2. 자본주의에서 벗어나기: 탈성장과 생태운동

“우리는 소비하지 않는 것을 생산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소비하지 않게 되었다.

충분하는 생각은 이 경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으로 무엇을 하기를 욕망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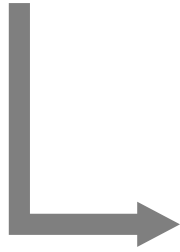
탈성장은 살아남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다른 경제, 다른 생활방식, 다른 문명, 다른 사회적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내재적 부

질문

우리는 그러한 대규모의 소비를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과연 우리의 욕망에 따른 것인가?



- 문명의 질은 내재적 부에 달려 있음
- 생활환경의 질
- 교육의 질
- 연대 관계
- 상부상조
- 공통의 상식과 실질적 지식의 확산
- 일상의 상호작용 속에 반영되고 펼쳐지는 문화

전문가 정치

[두가지 접근]

- 1) 에코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연구: 생태영역의 재생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산업이 계속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관리’ → 결국 산업주의와 도구적 이성
- 2) 국가 중심의 생태적 규제: 법제화와 세금, 보조금과 법칙금 → 타율규제 강화 → ‘생활세계의 식민화’ 확장

- 산업주의와 시장논리 안에서 생태주의적 고려는 기술관료 권력의 확장
- 고유한 삶의 지식을 불신하게 하고 개개인 삶의 자율성을 파괴
- 전문가 정치 득세

➡ ‘학생만들기 현상’= 무능화하는 전문직(일리치)

두 기술

[일리치]

① 닫힌 기술: 자율성의 영역을 축소하는 타율적 기술. ex) 원자력기술

- 기술적 도구는 개인이 생산과 소비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자본과 국가가 폭력적으로 유린 수단
- 생산 수단은 중립적 기술이 아닌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는 수단
- 노동자를 착취하며 지력을 소모시키는 기술 발달

② 열린 기술: 공생공락, 자율성의 영역을 늘리는 기술. ex) 자유소프트웨어

생태주의 운동의 기원

- 환경파괴와 삶의 질 훼손이 생존을 위협하기 훨씬 전에 탄생
- 경제와 정치권력 기구들이 일상 문화와 실존적 자율성을 파괴하는 데 대한 자발적 항거
- 생태주의 운동이 보호하는 ‘자연’: 근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이는 우리의 본성
- 본성의 수호는 생활세계의 수호를 의미함
- 생활세계(하버마스): 사회적 개인들이 자기 행위의 결과를 보고,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
- ‘삶을 바꾸는 일’: 인간적 자율성과 사회성의 공간을 얻어내려고 노력함으로써 삶을 체계와 그 관리자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충분함의 규범

경제적 합리성, 최대 수익 추구하고 양립 불가
전통적 삶의 양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개념
과거 노동자들의 노동 양식

→ 노동자들에게 생산수단 통제권을 빼앗아 노동을 조직하고 분할하여 부과(기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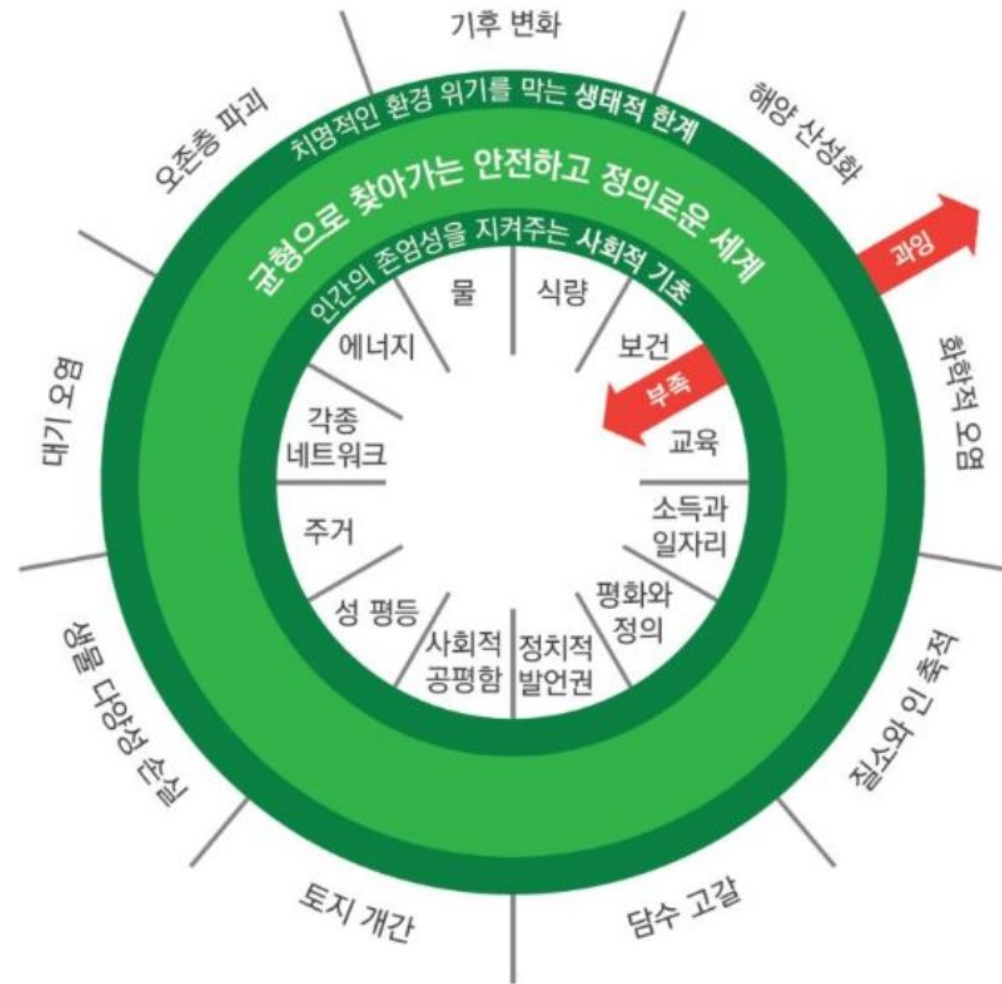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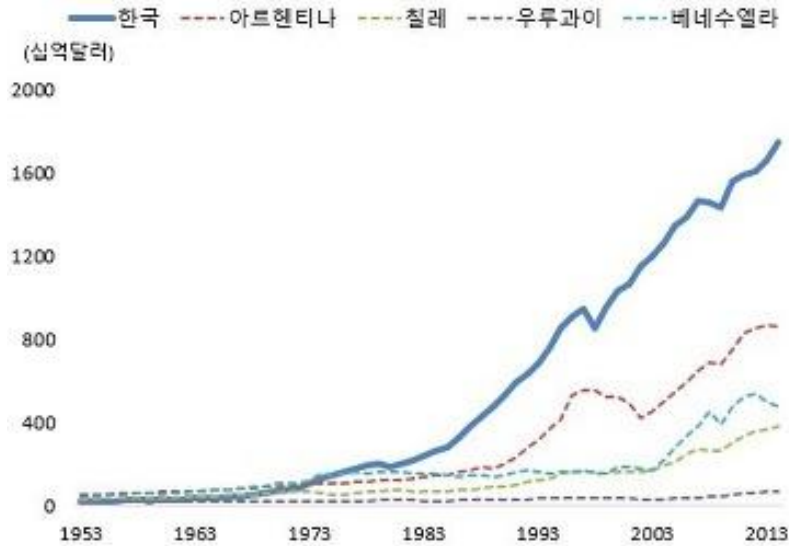
[만들어진 필요]

자발적으로 체험된 ‘자연스러운’ 필요나 욕망이 아닌,

자본 수익성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필요와 욕망

자본의 가치 증식에서 최대 효율의 추구는 최대한의 낭비와 비효율을 의미.

도넛 경제학



공유경제/ 진정한 지식경제

공유 자유소프트웨어 운동(copyleft, 지식커먼즈)

진정한 지식경제는 무상의 경제이며 지식을 인류 공동재화로 취급하는 공유경제

해커의 윤리: 삶의 기술이자 기존과 다른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실천

우리의 사고방식, 느끼는 방식, 욕망의 방식을 자본주의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방도를 모색

반(反)경제에서는 교환가치가 부의 척도가 아니며,

노동시간도 부의 척도가 아님.

‘필수품만 갖춘 단순하고 조용한 생활‘

공동생활과 소비, 생산, 분배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사회적 실험

계획 경제의 확대

-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의 영역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는 유통과 재고를 효율적이면서도 가능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조절해야 함
- 자유의 영역을 최대로 확장하기 위해 필요의 영역을 사회화
- 필요의 영역과 자유 영역이 서로 겹치지 않으므로 필요의 영역이 분명하게 한정되어야 함.



자급자족경제로의 회귀 아님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계획적인 사회화 지향 아님

국가가 개인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 아님

비판

중앙기구(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전문가와 관료가 주도하는 모순에 빠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 노동: 소유에서 자유로, 공범에서 창조자로

“ 생태사회적 정치의 핵심은 노동시간과 상관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 자체와도 상관없는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데 있다.
... 생활이나 환경이 돈벌이 경제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경제적 합리성이 적용되지 않는 활동영역이 온 사회에 늘어나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은 공범

임금 노동자의 최종 목표는 그들이 생산하는 물건이 아니라 ‘돈’
노동과 자본은 ‘돈벌기’가 그들의 궁극적 목적인 한, 서로의 대립을 통해 공범이 됨.
‘상품으로서의 노동’은 파괴와 약탈의 공동책임자
노동자와 대지를 동시에 착취(Marx)

(노동자들은) 직업적 존엄성 상실을 소비에서 얻음
소비와 구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구별하고 개성을 보여줌

cf) 노동운동과 노조는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만이 아니라 생산의 궁극적 목적,
노동의 상품으로서의 형식을 문제삼을 때만 반자본주의적

자유규제/ 자유노동

노동자 자주관리

생산자들이 스스로 생산수단의 주인

자유롭게 자기 노동의 강도, 기간, 일정을 결정

자유란 ‘연합한 생산자’들이 생산단위별로 요구되는 노동의 양과 질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검소한 풍요: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잘하기를 지향하는 삶의 모델

생산성은 하락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노동

경제적 합리성이 아닌 충분함의 규범

(노동의) 자율적 영역 확장

노동의 종말이 아닌, 상품관계가 노동에 대해 휘두르던 독재의 종말

노동은 '외적 필요'에서 해방되어 자율성을 회복

행위의 결과에서만큼이나 행위 자체에서 자신을 실현

일자리로서의 노동이 점점 사라지고 소프트웨어 구상이 가장 중요한 생산활동

노동은 더 이상 노동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활동 자체의 충만한 발현으로 나타남

“수단을 소유하는 한, 우리가 노동을 하지 누군가 우리에게 노동을 주는 것이 아님”

사회적 프로젝트로서 자율규제

복잡한 산업사회에 단순히 노동자에게 권리를 준다고 생산소비 구조의 생태친화적 변화는 불가
자율규제의 근거인 ‘충분함의 규범’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자본주의가 우리의 전통, 생활양식, 일상문명에서 ‘충분함’의 기준을 없애버림
덜 일하고 덜 소비하는 것이 더 자유롭고 나은 삶을 살게 한다는 전망도 없애버림

- ➔ • 현존 체제가 아닌, 온전히 새로운 기반, 생태사회프로젝트가 기반이 되어야 함.
- 노동시간과 상관없고 노동과도 상관없는 최소한의 수입보장
- 노동에서 벗어나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자율성의 공간 창출
- 환경과 생활이 돈벌이 경제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 경제적 합리성에서 벗어난 활동영역이 온 사회에 늘어나기

생존 소득

- (기본소득)
- 인간의 활동을 고용의 독재에서 해방시킴
- 실업자, 고용불안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함
- 재분배 논리 안에 위치시켜서는 안됨(복지X)
- 자본과 노동에 기반한 부를 급진적으로 넘어서려는 전복적 논리

감사합니다.

질의 응답 & 토론